

개신교 민영교도소

인권침해 소지 논란

“출소 후 종교의식 참여 강요” 종교 자유 막을 수도

개신교에서 설립 추진 중인 민영교도소가 헌법상 보장돼 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측은 내년 8월을 목표로 경기 여주군 북내면에 500명 수용 규모의 민영교도소를 건립하기 위해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를 설립했다.<본지 489호 1면 기사 참조>

본지가 아가페측이 법무부에 제출한 '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아가페는 민영교도소 설립 목적으로 '본 법인은 기독교 복음에 입각한 교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수용자, 출소자 나아가 그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화해, 피해자 및 사회의 화해, 자신의 내면과의 화해를 통하여 진정한 교화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

로 사회에 복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수용자 뿐 아니라 출소자, 가족, 더 나아가 사회 전체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또 제안서에는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2년여 간 3단계에 걸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 1단계(12개월) 기간에서 모든 수행자는 정해진 시간동안 지지집단 프로그램(성경공부 등)에 참석해야 하며, 2단계(6개월) 기간에서 모든 수행자는 1주일에 저녁 4시간씩의 지지집단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하고, 3단계(6개월) 기간에서 모든 출소자들은 지역 사회에 있는 후원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즉 1, 2단계 기간 중 오전 6시부터 6시 30분 까지 실시되는 새벽기도회

와 오후 8시부터 9시 까지 진행되는 성경교육 등의 '정신교육(영적교육) 시간'을 통해 '영적인 교제' '성숙한 인격 형성' '속죄의 봉사'를 하고, 출소 후 6개월 동안 '기독교 공동체 형성'을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3단계 '출소자들은 지역 사회에 있는 후원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부분은 출소 후까지도 강제적인 교화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 2단계에서 정신교육한 뒤 평가를 해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는 조항은 잔여 형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아 모범수로 조기 출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종교 활동을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에 대해 특정의 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출소 후 교화나 교육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김형남 변호사는 "종교적 교화를 시킨다는 미명 하에 수행자 및 출소자들에게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민영교도소 관련 한 관계자는 "제안서는 제안서일 뿐 이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영교도소와 달리 민영교도소는 운영 주체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된다"고 말해 제안서대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중학교 특성화 과목에 템플스테이 첫 개설

대한학교인 경기도 성남의 이우(以友, 벗과 더불어중학교)가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불교문화체험 강좌를 2학기 특성화 교과목으로 개설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초 중앙대학교가 '내 마음 바로보기'라는 3학년짜리 템플스테이 강좌를 개설한 바 있지만,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템플스테이를 교과목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라미터청소년협회와 한국불교전문문화체험사업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강좌는 '산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스님에게 듣는 사찰과 불교' 서울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등 인근 사찰을 탐방하는 '인근 사찰 순례' 감사, 마곡사, 부석사 등을 찾는 '전통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등의 내용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된다.

9월 7일 첫 시간 '사찰과 불교' 강좌의 위해 대한학교를 찾은 한국불교전문문화체험사업단 사무국장 주경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한학교의 교육관과 상당부분 부합한다"며 "대한학교를 중심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등의 학교교육에 템플스테이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계율 실천은 수행 과정”

현장 - '수행과 계율' 주제 선우논강

선우도량(대표 철우·현각)은 9월 3일 남원 실상사에서 '수행과 계율'을 주제로 제10회 선우논강을 열었다. 이번 논강의 핵심은 '오늘날 계율은 왜 안 지켜지나' '별빈제도의 문제점' '참회 정신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등 갈수록 흐려지고 있는 계율인식의 문제점을 짚고 계율의 실천적 재정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계율, 왜 안 지켜지나
논강에 앞서 논주자로 나선 해인율원장 해능 스님은 계정해(戒定慧) 삼학의 정신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계율과 수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 4시간에 걸친 집중 강의를 펼쳤다. 특히, 승가의 특징, 교단에서 승가의 위치, 출가의 의미, 승가의 존재 근거로서 '계(戒)와 율(律)'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고 있는 계와 율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계는 자율적인 윤리도덕의 개념으로 타인이 강제하지 못하는 것인데 반해, 율(律)은 국가의 법령과 같아서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지는 타율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또 "승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율에 의해서라기보다 개인 스님들 각자 계의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계율을 경시하는 종단풍토를 경계했다.

이와 관련해 동화사 강주 해월 스님은 "계율이 안 지켜지는 이유는 수행자들의 출가정신 상실 때문이며, 기본교육과정부터 계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출가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흥사 수련원장 법인 스님도 "출가 후 선배스님들의 지도는 선(禪)중심의 이였을 뿐, 계율 잘 지키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며 "계정해"의 중요성을 개념적으로만 지도하는 종단 현실을 꼬집었다. 또, 절곡 송림사 혜선 스님은 "편의주의, 개인주의, 형식주의가 만연한 불교계의 현실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 승단풍토를 만들어 왔다"고 진단했다.

▲수행과 계율 어떻게 조화시키나
어떻게 현실적으로 수행과 계율

율을 조화시킬 것인가에 논의의 이어졌다. 해능 스님은 "엄한 규칙만으로는 수행과 계율을 조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능 스님은 "계율에 대한 인식이 열어지면 다들 안 지키면 괜찮고, 걸리면 재수 없어서 그랬다는 의식만 키웠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해능 스님의 이런 지적은 계와 율을 역지로 강요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의지와 종단의 계율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상사 도법 스님도 "결코만 수행의 위의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계와 율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며 계율의 실천을 강조했다. 또, 실상사 화림원의 재인 스님은 "계율의 실천이 깨달음의 실천이기 때문에 계율을 깨달음으로 가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단, 계율자체를 절대시 하지 않아야 한다. 계율의 실천자체는 깨달음으로 가는 진행과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별빈제 규정에서는 현 중원종법의 별빈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해능 스님은 별빈제도는 스스로 참회하고 수행하게 하는 율장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종단의 별빈제 문제와 관련해 재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능 스님은 "율장의 정신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비구에게 대한 '별빈'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중원종법도 지금 시대의 율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최근 이와 관련, 영산율원장 철우 스님은 본지 인터뷰에서 해능 스님의 주장과는 달리 "별빈은 원칙적으로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한 비구(比丘)에게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별빈구제 대상자가 '바라이죄'가 아닌 종단 내부의 분란에 의한 별빈이기 때문에 "율장대로만 해석한다면 구제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우 스님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의 중원종법이 사회법을 모방하면서 부처님의 근본법을 잘못 반영하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는 대목이다.

조용수 기자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했던 불자 선수와 체육인들은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환영법회에 참석하고 불자체육인연합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아테네 올림픽 불자선수단 환영법회

2004 아테네 올림픽 불자선수단 환영법회가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렸다. 법회에서 한마음불자회 김인섭(세슬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마음불자회 임원 및 선수들은 아테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 법회를 계기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법회는 불자체육인연합회 창립위원회 발족선언과 축가, 기념품 및 격

려금 증정, 발족 축하며 절단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을 비롯 종단 관계자들과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경모·임동현 선수(양궁) 등 20여명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했다.

한편 불자체육인연합회는 이희경 불림 국가대표 감독이 회장으로 있으며 가을 경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해인사-獨 로쉬수도원 협력 착수 세계문화유산 보호 파트너십 합의서 조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해인사주지 세민(세민)과 독일 로쉬 수도원이 9월 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상호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계문화유산 보호 파트너십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협력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 로쉬 수도원 관리를 맡고 있는 쉐퍼 원장, 한국 유네스코 김여수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인식에서, 양측은 △사원·대학·학교·교육기관 사이의 협력 △세계

유산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 촉진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5일부터 구체적인 협력 방안 협의를 착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상호 정보를 소개하고, 독일 내 고려대장경 순회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인적·학술적 교류의 폭을 점차 넓혀가기로 했다.

2005년 교류 계획과 관련 양측은 내년 2월 해인사가 로쉬 수도원을 방문하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에 고려대장경을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박익순 기자

'불교출판문화협회' 출범

불교 출판문화 진흥과 문서포교의 활성화를 위한 '불교출판문화협회'가 9월 20일 오후 5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제정 및 임원선출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이 만들어진 불교출판문화협

회는 지난 1990년대 초 결성됐던 '불교출판인협의회'가 확대 재편된 것으로, 불교계 출판사뿐만 아니라 불교 서점과 필자, 디자이너 등 출판과 관련된 종사자들을 포괄하는 단체다. 협회는 앞으로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불교 독서인구 증대와 독서문화의 진흥, 출판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02)732-2404 여수령 기자

故 대원 장경호 거사 29주기 추모법요식



고 장경호 거사의 흉상 제막식.

(사)한국불교대원회(이사장 장세우)는 9월 5일 서울 후암동 대원정사에서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을 비롯해 최명준 불교진흥원사무국장 등 2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故 대원 장경호거사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대원정사 1층 현관에 조성된 장경호 거사 흉상은 세로 185cm 가로 60cm로 제작됐다.

이러 한국불교대원회는 대원정사 3층 큰법당에서 월운 큰스님 초청故 대원 장경호거사 29주기 추모법요식을 봉행했다.

故 대원 장경호거사는 개인사재를 모두 헌납해 재단법인 대원정사, 사단법인 한국불교대원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했다. 김원우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a Buddhist ceremony. It features the text '大韓佛教 曹溪宗 法住寺 門中葬 南山堂 正日 大禪師 永訣式' (Great Korean Buddhism, Saheungjong, Faljusa, Monjong, Namsan Hall, Official Day, Great Zen Master, Eternal Farewell Ceremony).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date (September 11, 2004), time (11 AM), and location (Bupjusa Gungnyang-dong). A list of participants and roles is provided, including the officiant (Seonwon), the deceased (Seonwon), and various roles like '장례위원장' (Funeral Director) and '장례위원' (Funeral Committee Members). It also lists sponso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